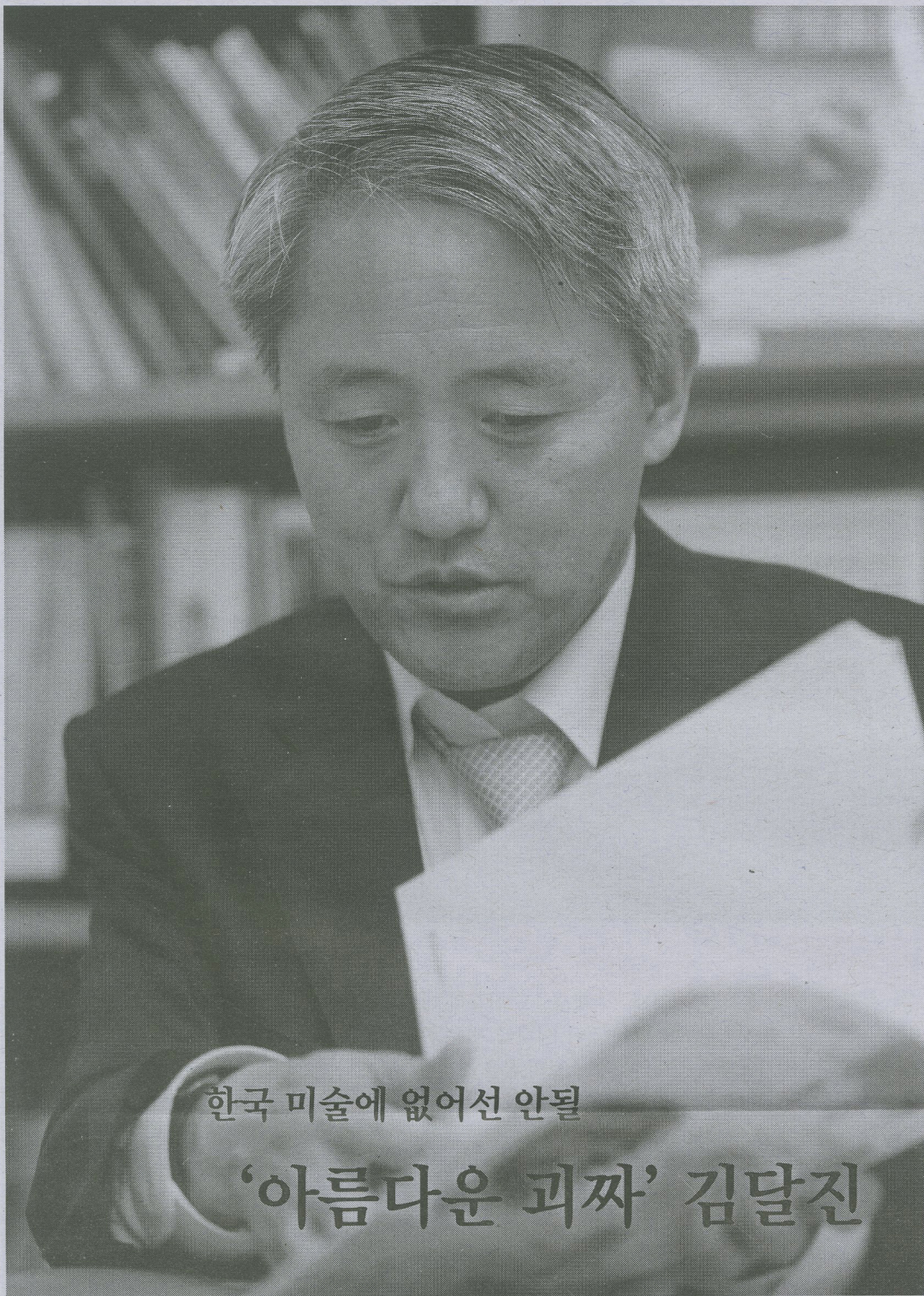




한국 미술에 없어선 안될

‘아름다운 괴짜’ 김달진

‘김달진미술연구소’의 김달진(55) 소장은 괴짜다. 미술을 좋아해 중고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미술에 관한 것이라면 닥치는대로 모았다. 오죽하면 ‘걸어다니는 미술자료’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그는 미술 자료 보존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미술계에 자료의 체계를 만들고 수많은 통계와 분석을 남겼다. 국가가 해야할 방대한 자료 작업을 한 개인이 해낸 것이다.

고졸 출신에 정규 미술교육이 곤란 받아본 적도 없고, 국립현대미술관 일용직 출신인 그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기까지 말 못할 설움과 홀대를 겪기도 했다고.

하지만 지금 그는 우리 미술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달진은 단순한 괴짜가 아니라 이시대의 진정 아름다운 괴짜가 아닐까.

‘아름다운 괴짜’ 김달진 소장이 이번에는 미술관련 인사 4909명의 출생지, 학력, 전시경력 등 기초정보를 수록한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I’을 출간해 화제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만든

이번 인명록에는 기존 미술연감 인명록에 빠져 있던 월북 및 남북 작가와 재외동포, 행방불명 미술인에 대한 정보도 꼼꼼히 수록돼 있어 눈길을 끈다.

그가 펴낸 ‘서울아트가이드’도 어느덧 지령 100호를 돌파했다. 작은 팜플렛으로 시작했던 ‘서울아트가이드’가 지금의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발품을 팔아 얻어낸 전문적인 지식은 미술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미술관, 가나아트센터 등 메이저 전시관에서 일간지를 제치고 가장 먼저 광고를 신는 미술잡지가 됐다.

그가 설립한 김달진미술연구소 자료박물관에는 김달진 소장이 36년간 수집해왔던 자료 중에서 사료적 가치가 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전시돼 있다. 일제강점기를 시작으로 출간됐던 미술잡지부터 각종 팜플렛, 개인 파일까지 방대한 미술자료들이 미술의 역사를 보여주며 일반인들에게 개

방해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문화저널21은 미술계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괴짜’ 김달진 소장을 만나 미술인명사전과 서울아트가이드를 발간한 계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한민국 미술인명사전”을 발간하게 된 계기는.

“인명사전은 갑자기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술잡지에서 근무하면서 1979년부터 미술인명사전을 만들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는 것이다. 청계천 헌책방 골목을 이 잡듯이 뒤지며 근현대작가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좋았다. 신문 부음난에서 미술가들의 타계 날짜를 스크랩해 카드화, 목록화하기도 했다.”

“인명사전을 만들면서 어려웠던 점은.

“유명하지 않은 작가의 경우 정보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명작가만 신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2등별이 있어야 1등별이 빛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같은 화가인데 누구는 묻혀져서 아예 존재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동년배 작가들과 유족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고,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을 추적하고 또 추적해서 자료를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대학 졸업장 없이 미술계에서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학연, 지연이 중요한 미술계에서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은 커다란 컴플렉스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이다.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변변히 승진에서 좌절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15년간 근무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떠나게 된 것도 일한만큼 직급을 받지 못해서였다. 가슴 속의 웅어리가 커져서 건

보였다. 내가 봐도 누가 여기에 광고를 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아는 많은 미술인들의 동정심과 신뢰가 바탕이 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금은 해외전시에 대한 흐름, 미술 전문가들의 칼럼, 미술신간에 대한 폭넓은 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으며 김달진미술연구소의 든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국가가 해야할 일들을 개인이 맡아서 하면서 힘에 겨운 점은 없는지.

“보람과 긍지도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 너무 많다. 문화부가 공연예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각예술에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 공연문화의 경우, ‘대화로문화지

미술관 일용직 등 밑바닥에서 미술계 인물 되기까지 “단순히 자료만 모았다면 지금의 김달진은 없었다”

될 수 없었다. 당시 초등학생 아들이 몸이 아파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가 신문배달을 하는 등 고생을 겪었다. 뒤늦게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와 중앙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왔기에 나만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故 이경성 관장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사람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자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미술계에 따끔한 지적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단순히 자료만 모았다면 지금의 김달진은 없었을 것이다. 자료를 공유화했고, 통계화하고 분석해서 자료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 점은 여타의 미술평론가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낸 것이라 자부한다.

또한 미술계에 만연한 다양한 문제점 등을 글을 써서 알렸으며 여러 다양한 분석과 통계를 미술계에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미술자료 수집으로 일가를 이루고 미술자료사라는 새로운 직업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자부한다.”

“‘서울아트가이드’가 이 정도 성공을 거둘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들었다.

“처음 팜플렛 형식으로 발간하면서 화랑과 작가들에게 광고를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냉담한 반응을

보았다. 내가 봐도 누가 여기에 광고를 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아는 많은 미술인들의 동정심과 신뢰가 바탕이 되면서 점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지금은 해외전시에 대한 흐름, 미술 전문가들의 칼럼, 미술신간에 대한 폭넓은 정보 등 차별화된 콘텐츠로 사랑받고 있으며 김달진미술연구소의 든든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그동안 모든 자료들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요즘 세대들에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정보는 죽은 정보 아닌가. 그것을 일일이 개인인 내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많은 미술인들이 인사동에 ‘한국 미술정보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현재 김달진미술박물관에 방대한 분량의 미술자료들이 있다. 내가 30여년간 모은 자료도 있지만 많은 미술인들이 계속해서 기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간 문제로 기증품을 다 받아줄 수 없는 형편이다.

또 공간이 협소해 세 군데에 나눠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미술관이 집중돼 있는 인사동에 ‘한국 미술정보센터’가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료들은 이미 내가 다 수집해왔으니 정부에서 공간만 마련해주면 해결이 된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서 강조했듯이 인사동에 ‘한국 미술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것. 또 ‘대한민국 미술인명록’ 시리즈를 계속 발간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미술인명사전’을 만드는 것이다.

배문희 기자 baemoony@